文學교육과 國語교육

李 東 夏
(서울市立大 國語國文學科)

대학에 몸담고 있으면서 내가 하는 일은 대략 세 가지이다. 그 첫째는 국문과 학생들을 상대로 하여 주로 한국 현대소설과 비평에 관한 강의를 하는 일이고, 그 둘째는 1학년 학생들 중 내게 배당된 인원을 상대로 하여 교양국어 과목의 강의를 하는 일이며, 그 세째는 제도상으로는 이미 폐지된 것이지만 관례에 따라서 국문과 학생들 중 한 학년을 맡아 지도 교수 노릇을 하는 일이다. 이 세 가지 직무와 관련하여 그동안 나는 여러 가지를 느끼고 생각한 바 있거니와, 이 자리에서는 그 중 앞의 두 가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언급해 보기로 하겠다.

앞에서 나는 대학 선생으로서의 내 첫번째 과제가 한국 현대소설과 비평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말했거니와,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강단에 설 때마다 사실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은 오늘날 대학에서 문학 관계의 강의를 맡고 있는 교수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니고 있는 고민을 나 또한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 고민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촛점을 학생들에게로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날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문학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불행한 여건 속에서 고교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알다시피 오늘날의 殺人的인 入試競爭은 고교생들에게 교양을 위한 독서의 시간을 전혀 허용해 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만큼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문학과의 접촉이란 거의 전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한정된다. 그런데 학교에서 국어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문학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심각한 한계를 안고 있다. 그 첫째는 교과서 자체가 부분적으로 國家安保를 위한 명분에 종속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국어 교과서의 문학 부분은 소위 순수문학이라는 것과 질 낮은 이른바 애국문학으로만 채워지며, 현실 비판적인 의식을 담은 문학 작품과 작가는 완벽하게 배제당한다. 둘째는 문학교육 역시 入試競爭에 동원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시험출제에 편리한 斷片的 知識을 주입하는 것이 주축을 이루며, 문학 작품 그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음미하는 훈련은 거의 행해지지 않고 만다는 점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교 시절을 보내고 대학

에 들어온 학생들은 초기에는 고등학교 시절에 주입받은 대로 순수문학과 졸렬한 애국문학이 좋은 문학인줄 알고 그런 것을 찾아 읽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격한 방향 전환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러한 방향 전환은 고교 시절에 받은 문학교육이 얼마나 편협하고 기형적인 것이었던가를 깨닫게 되면서 일어난다. 즉, 일체의 현실 비판 의식을 배제한 문학만을 좋은 문학이라고 가르치고 우리 문학사의 엄연한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 비판적 문학을 백퍼센트 무시해 버렸던 그 허울좋은 문학교육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학생들은 바로 그렇게 무시당하고 자기들의 눈 앞에서 감춰져 왔던 문학의 세계를 향하여 돌아서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대학생들이 이른바 민중문학 쪽에 압도적으로 경사되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그들의 관심이 가는 방향은 극단적인 전환을 보여 주지만, 그 전환의 발생과 관계없이 엄연하게 지속되는 것도 있다. 그들의 독서 체험이 매우 빈약하다는 사실과 문학 작품 자체를 이해하고 음미하는 능력이 높지 못하다는 사실은 그들이 순수문학에 기울어져 있을 때나 민중문학으로 돌아선 이후에나 별 변화가 없는 것이다.

나를 포함한 대학의 많은 문학 담당 교수들이 학생을 만날 때 그 학생들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교수의 입장에서 이들에게 시급히 해주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대략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으리라. 그 첫째는 그들이 광범하고 수준 높은 독서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이 문학 작품 자체를 이해하고 음미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며, 세째는 순수문학에만 기울어지는 것도 민중문학에만 빠지는 것도 다같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좀더 넓은 시야를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 과제 가운데 어느 하나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학생들은 이미 고교 시절의 문학교육이 지닌 기형성으로 말미암아 쓴 맛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선생이 하는 말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의 뜻이 그다지 쉽게 학생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들의 독서량이 빈약하다는 사실은 그들의 시야를 좁게 만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더욱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의 정당성을 굳게 믿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일단 민중문학에 자신의 믿음을 걸게 될 경우, 오로지 그 믿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책들만을 읽고 다른 세계에 대해서는 계속 모르는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도 그 무지를 극복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경향에다 다시 앞서 말한 선생 일반에 대한 불신이 겹칠 때 교수의 노력이 만만치 않은 장애에 부딪치게 되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리라.

이러한 현실이 앞에서 말한 대로 나를 포함한 많은 문학 담당의 교수들에게 당혹감과 고민을 안겨 주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금 언급한 세 가지 과제의 수행을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최선의 노력으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교육을 정권 안보의 수단으로 취급하는 발상과 지나친 입시 경쟁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 문제들의 올바른 해결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교양국어를 1학

년 과목 속에 포함시켜 두고 있으며 그 강의 내용 속에는 한국 현대문학에 관련된 것이 상당한 비중으로 들어가 있다.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많은 대학에서 이 교양국어 중의 현대문학 부분을 안이하게 취급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시각으로 접근한 결과 모처럼 주어진 문학교육의 기회를 망쳐 놓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대학 국어 교과서의 현대문학 부분을 채우고 있는 작품들의 목록을 볼 때에 단적으로 입증된다. 대개의 경우 1920년대와 1930년대 및 1950년대의 문학 작품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이른바 순수문학의 진영에 속하거나 적어도 그 진영에서 배척받지 않는 작가들의 작품이 즐겨 채택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등학교 시절에 싫증이 나도록 배웠던 것을 대학에 들어와 또 만나게 되니 쓸데없는 중복 수업이라는 느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강의의 수준이 더 높아지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며, 오히려 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것보다 더 피상적인 얘기만 몇 마디 듣다가 끝나 버리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니 대학 국어 중의 현대문학 분야가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없는 강좌로 꼽히게 되는 것도 당연한 노릇이다.

그러면 대학에서 교양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가? 아니다. 잘 알고 있다. 1983년 12월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대학 교양국어 과정의 현실과 당면 과제'라는 제목으로 학술 회의를 열었을 때 거기서 주제 발표를 한 사람이나 토론자로 참석한 사람이나 모두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가 절실하다는 얘기를 했던 것만 보아도 그 점은 곧 입증된다. 그런데 이처럼 개선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으면서도 실제 개선의 작업이 이루어진 예는 참으로 드문 듯하니 그것이야말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개선의 필요를 말로만 주장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난 번 교과서 개편 때 실제적인 작업을 행했다. 現實批判的 性向의 작품들을 적절한 비율로 집어넣었으며, 1970년대의 작품은 물론 1980년대의 작품까지도 포함시켰다. 그 결과 시 장르에서는 김수영, 신동엽, 신경림, 이성부, 정희성, 황지우 등의 작품이 들어갔고, 소설 장르에서는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임철우의 「아버지의 땅」 등이 포함되었다. 지금에 와서 보면 越北 작가의 작품을 하나도 싣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 해금 전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여건이 달라졌으니 앞으로 다시 개정 작업이 있게 되면 이 문제도 고려하여 수록의 폭을 더 넓힐 작정으로 있다.

나는 내가 참여하여 개편한 교과서가 남들의 모범이 될 만한 것이라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다만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최소한의 기준선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최근의 작품을 교과서에 포함시키는 데 주저하게 되는 이유로 '문학사적 위치가 확립된 작품만을 가르쳐야 한다는 요청'을 운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다. 김동인의 작품은 문학사적 위치가 확립된 것이고 임철우의 것은 그렇지 못하다고 어느 누가 감히 단언할 수 있는가? 문학사적 위치라는 이름의 공허한 주문에 집착하다가 대학의 국어교육을 계속 이 모양으로 방치해 둘 수는 없다. *